

KÓKKOS 6

• 코코스는 '현열의 믿음의미' • 발행인 최영권 • 편집장 박기이강동 •

✦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4번 32 • TEL. 02-950-5401 • www.kbb.ac.kr •



JUNE 2026

VOL. 290

▲ 밀알축제 장기자랑에 참가한 구성미스 팀이 무대 위에서 역동적인 댄스 공연을 선보이며 축제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열정 넘치는 퍼포먼스에 학우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청춘의 에너지를 함께 나눴다. 왼쪽부터 구태희(사복2), 임건(사복4), 이수민(사복2) [관련 기사 3면]



개교 74주년 기념 예배와 잔치

“복음 들고 걸어갈 그리스도의 인재 양성”

▲ 설립자 강태국 박사

개교 74주년(1952~2026) 기념 예배가 13일 로고스홀에서 엄수되었다.

6·25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았던 1952년 5월, 폐허의 한반도 판 서울 새문안교회 1층 중등부실에서 ‘한국성서학원’은 시작되었다. 전교생은 평양에서 월남한 피난민 조만호 등 7명. 개교 첫날부터 아침마다 그들은 ‘조국이 통일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였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찬송가 580장)을 외쳐 불렀다.

설립자는 1934년 일본 고오베 중앙신학교 재학시절 -한반도를 복음화 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서약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이 살길은 오직 모든 국민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는 것 뿐’이라고 믿었다. 한국성서대학은 그 이래로 한반도 복음화의 일꾼을 양성하는 학교로 일관되게 걸어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나아 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개교기념 예배는 박태수 교목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동문회장 김동관 목사(수원 안디옥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마 28:18~20)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의 공생

애는 사역과 제자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말씀 교육은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온전한 전인교육”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이 말씀 교육으로 한반도 복음화를 위한 복음 전도자 양성의 사명을 변함없이 이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권 총장은 인사에서 설립자가 쓴 대학 교육목적 제7조를 인용(하단 참조)하며 “교육 환경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복음 전도자 양성이라는 우리 대학의 설립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복음화와 밀알정신의 계승을 위해 법례를 짊어지고 뱀세메 스스로 향하던 암소처럼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최선희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한국성서대학교가 온 세상에 복음의 등불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많은 이들이 본받는 대학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고 KBU찬양팀 특송과 이병철 목사(37회·본교이사·주향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총동문회(회장 김동관 목사)와 한국성서선교회(총회장 현희철 목사)는 대학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 발전후원금을 전달하였다.

교육목적 제7조 “유명한 사람이나 교파, 교단,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서에 입각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복음을 들고 걸어갈 그리스도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한국성서대학교의 정신이다.”

진짜 감사 시 100 편 김창현 목사(교목실)

시편 100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감사의 시다. 시편 기자는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할 것을 권면하며, 그 이유를 우리의 정체성에서 찾고 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는 3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따라서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고 세상의 인정과 시선을 따라 살

때가 많다. 그럴 때 신앙은 피곤해지고 예배는 형식이 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붙들 때 감사와 찬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감사는 좋은 일이 많아 드리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진짜 감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한다.

미니설교



개교 74주년 밀알축제 성황

장기자랑 대상

아트레이더스 밴드(정석준 외 12명)

초청 아티스트 공연

청춘의 감성 찼하게 전달

개교 74주년을 기념하는 W!sh총학생회 주관 밀알축제가 지난 13일 개교기념 예배를 마친 정오부터 교내 잔디마당과 원벤 일대에서 열렸다. 올해 축제 주제는 'W!sh Field: 도심에서 벗어나'였다.

하이라이트는 장기자랑과 초청아티스트 공연. 잔디마당에서 벌어진 장기자랑에는 총 12개 팀이 참가해 노래와 연주, 퍼포먼스 등 각자의 재능을 선보였다. 남현모 원우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아트레이더스 밴드 동아리팀(정석준 외 12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진 초청 아티스트들의 공연은 5인조 밴드 캔트비블루(Can't Be Blue)의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상사화' 등을 선보이며 역동적인 밴드 사운드로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어 싱어송라이터 시소(Siso)는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요', '그애에게'를 감성적으로 들려주며 청춘의 감성을 깊이 있게 전했다.

야외마당에는 5개 학회와 동아리가 참여한 다양한 부스가 마련돼 학생들의 발길을 끌었다. 냉음료와 삼겹살, 토스트, 수박차채, 한강라면 등 다채로운 먹거리가 제공됐으며, 원어민 회화체험 부스와 몽골선교팀, 진로심리상담센터는 유익한 정보와 상담의 기회를 제공했다.

원벤 주변으로 중고 물품과 액세서리, 소품 등을 판매하는 플라마켓장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또한 푸드트럭에서는 닭강정, 수제 추러스, 오리훈제구이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학생들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게임 존과 넷츠 포토부스, 포토 존, 리프레시 존도 학생들에게 또 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 만학도 학우들이 모여 맛있는 성서대 부침개를 판매하고 있다.



▲ 외부 푸드트럭에서 닭강정과 수제추러스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 초청 아티스트 캔트비블루 팀이 무대와 필드에서 학우들과 열정을 녹여내고 있다.



▲ 성서학회원들이 부스에서 갈증을 해소하라며 음료를 권한다.

20년 장기근속 교직원 포상

권순범, 양희정 차장, 김덕현 과장



▲ 권순범 차장
(혁신사업단)



▲ 양희정 차장
(사무관리팀)



▲ 김덕현 과장
(전산지원팀)

학교는 지난 13일 개교 74주년 기념식에서 권순범(혁신사업단), 양희정 차장(사무관리팀)과 김덕현 과장(전산지원팀)에게 20년 근속감사패와 함께 부상을 수여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성서공동체에서 20년간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전도자 양성에 헌신적으로 수고하였다.

교직원들의 모임인 '우리회'에서도 축하 꽃다발로 마음을 더하였고 모든 참석자가 힘찬 박수로 소명에 헌신한 수상자를 응원하며 감사를 나누었다.

4학년 주관예배

4년간 신앙과
학문의 성숙함 배웠다

누군가의 유익을 돕고 섬기는 사랑의 사람



▲ 최인성 학우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2026학년도 1학기 4학년 주관 예배가 5월 18일~29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다. 이 기간 4학년 학우들이 예배의 사회와 간증, 설교를 담당하였다.

27일 최인성 학우가 '사랑했던 기억'(고전 13:1~13)의 말씀에서 사랑 없는 신앙과 자기 과시적 신앙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고린도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은사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과시로 소음이 되고 만다. 자기보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선택하셨다. 한 알의 밀이 썩어져 자신을 내어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정신처럼 자신을 내려놓으면 생명의 결실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누군가의 유익을 돕고 섬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였다.

신정은(AI) 학우는 중학생 때 교회를 다녔고 선교를 통해 주님을 알았다. 사회생활 중에도 배움을 위해 우리 학교에 왔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임했으나 가족 구원을 못 이룬 공허함 때문에 늘 외로웠다. 그는 "주님은 나에게 좋은 동역자와 교수님을 붙여주셨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도 배우게 해 주었다. 가족 구원을 못 이뤘으나 주신 사명을 가슴에 안고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의 사람이 되겠다"고 간증하였다.

주관예배의 간증 및 설교제목은 다음과 같다.

- 1주차** 18일(월) ▲ 신정은(AI) ▲ 이석근 '모범생의 그림자'
 19일(화) ▲ 김태일(AI) ▲ 황미숙 '인생의 방향'
 20일(수) ▲ 이대성(AI) ▲ 김명규 '십자가의 아다지오, 부활의 알레그로, 그리고 우리의 크레센도'
 22일(금) ▲ 김민재(AI) ▲ 이만호 '나는 좋은 땅인가요?'
- 2주차** 26일(화) ▲ 이항기(사복) ▲ 김승기 '율법, 선글라스가 아닌 안경'
 27일(수) ▲ 김시진(사복) ▲ 최인성 '사랑했던 기억'
 28일(목) ▲ 조기쁨(사복) ▲ 권열매 '열매처럼'
 29일(금) ▲ 서지영(사복) ▲ 서하람 '계산 불가'

대학원 개교기념 세미나

강사: 조정환 목사(평촌 드림교회)



▲ 조정환 목사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원 개교기념 세미나가 5월 11일 오후 6시 30분 안창선 목사(대학원 교학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세미나 강사 조정환 목사(51회, 평촌 드림교회 담임)는 '광야에 길을 여신 하나님' 제목으로 자신의 목회 길을 소개하였다.

주제 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광야에 길을 여신 하나님'

우리 학교에 재학 중 밀알 정신이 이해되지 않았고 방향이 이어졌으며 급기야 학사경고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인도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만 사고로 소천하고 말았다. 그는 내게 밀알정신을 남겼다. 밀알정신은 구호나 철학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임을 체감했다.

목회 현장에서 느낀 건, 기술과 능력이 아니다. 어떤 정신(영성)을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확신을 갖추었느냐가 중요하다. 많은 능력자가 영성의 뿌리가 부족해 무너지는 것을 봤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목회 본질을 결코 벗어나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반문하며 영적인 동체 시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후배 모두가 주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분별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묵묵히 뿌리 내리는 삶에 적극 도전해 주길 당부했다.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연구, 진로지원, 사회봉사 등
대표적 3개 혁신 사업



▲ 윤혜진 센터장



▲ 강정원 교수



▲ 장인순 교수

우리 대학의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회가 5월 13일 오후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열렸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학생-교수 공동연구 활성화(발표자 윤혜진 교수학습센터장)등 3가지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가 있었다. **(발표 내용 요약 하단)**

발표회에는 70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발표자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참석자들은 박수로 그들의 노고를 응원했다. 최정권 총장은 “혁신사업은 대학이 미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과 체질 개선에 있다며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내 감사하다.”라고 격려했다. 2025년도 대학혁신사업성과보고서는 오는 6월 23일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게 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는 8월 초 발표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성평가 사업비가 결정된다.

학생-교수 공동연구 활성화 사업 (윤혜진 센터장)

‘학생-교수 공동연구’라는 전통적인 이름의 학문 활동이지만 연구 주제는 다양한 전공지식을(예 디지털 리터러시x생태교육x유아교육)을 연결하는 융복합적이다. 또한 ‘KI 학술 연구지 게재’라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정하고 있으면서도 교수와 협업하여 학습자 주도로 진행하면서 학문적 공동체성을 추구한다. 2026년부터 비교과과정이 아닌 학점을 부여하는 일반 교과과정으로 편입함으로써 새로운 교육과정의 학습 모델 구현을 시도한다.

학업지속을 위한 진로교육 체계화 (강정원 교수)

진로교육은 전공 교육과정 내의 필수교과목으로 4년 8학기 매주 전공과 비교과, 학습, 취업 및 진로 지원 등을 촘촘히 연결한 공식적인 수업계획에 따라 지도교수별 분반을 통해 운영된다.

지속가능한 통합적 사회공헌 사회봉사체계 구축(장인순 교수)

대학은 사회적 가치실현에 구조적 체계적으로 참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사회임팩트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각 학과, 일립교육원(일립교육, 기초교양교육), 교학처, 교목실 등 4개 부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 봉사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적 가치실현 활동을 사회공헌과 사회봉사로 나누고 4개 부서의 업무 관련성을 따라 능동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제1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간호학과 52명
간호사의 사명과 책임 다짐



▲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참가한 학우들이 손을 들어 선서하고 있다.

간호학과(학과장 김주아) 3학년 학생들의 ‘제1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7일 로고스홀에서 안현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선서식은 로고스홀 내부 소등과 함께 선서자 52명이 2명씩 대오를 맞춰 나갔고 4학년 김예은·백소연 학생은 후배의 촛불을 점화시켰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선서하며 예비 간호사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을 엄숙히 다짐했다.

나이팅게일 선서는 예비 간호사들이 첫 임상실습에 앞서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는 행사다. 이번 선서식에는 간호학과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최정권 총장은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통해 ‘말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떠나보내면서 이후의 상황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 학우 여러분은 졸업 후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김의 삶을 실천해 갈 때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김조자(前 대한간호협회장) 교수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헌신적인 간호를 소개하고 “오늘 선서한 학우들이 주님 안에서 사람과 생명을 사랑하는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교 74주년 기념 설교세미나 성황리 개최

송태근 목사
“말씀 앞에서 설득당한 설교자이어야”



▲ 김희석 교수가 1교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개교 74주년 기념 동문 및 지역 목회자 초청 설교세미나가 6월 1일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세미나에는 180명이 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최정권 총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세미나가 설교자에게 동일 함을 벗어나 주님의 음성을 향한 갈망과 두려울라감의 은혜를 입는 은총의 현장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희석 교수 등 4명의 설교자가 ‘AI시대, 설교의 본질을 묻다’를 주제로 설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미나는 모집 정원(150명)을 초과, 2교시부터는 로고스홀로 이동해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세미나 전체 만족도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4.54점을 주었다. “설교 주해의 실재를 풍성하게 배웠고 본문 다루는 법과 AI사용의 명암을 인식한 값진 시간이었다”라며 대다수가 긍정적인 소감을 남겼다.

강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김희석 교수(총신신대원 구약학)

언약 신학 관점에서 본 구약 주해 방법론: 시편 88을 중심으로'

언약 신학의 흐름으로 본문을 읽고 탄식 시의 구조와 정경적 의미, 예수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잘 연결될 수 있는 것 등을 제시 해주었다.

▲ 송태근 목사(삼일교회 담임)

'AI 시대의 설교자: 하나님께 받은 설교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시발달로 설교 원고가 풍성하지만 본문 앞에서 오래 머문 설교자의 떨림은 대신 할 수 없다. 설교 생산자가 아닌 말씀 앞에서 설득당한 설교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지찬 목사(전 총신신대원)

'좋은 설교를 하려면 디테일에 승부를 걸라'

설교가 본문에 대한 평론이 되어선 안 된다. 먼저 본문을 듣고 익숙하게 지나칠 수 있는 단어와 구조, 반복과 문맥의 디테일이 설교의 깊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규성 교수(성서대 구약학)

'주해와 신학, 그리고 적용 질문의 융합: 하나의 메시지를 세우는 설교 플롯'

본문 주해와 신학적 정리, 청중의 삶을 향한 적용 질문을 분리하지 않고 메시지 안에서 통합하면서 본문의 신학적 흐름을 따라 말씀의 자리로 이끄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1학기 성경 졸업고사 69.2% 합격

4학년 27명 아직 패스 못해

2026년도 1학기 성경 졸업고사가 30일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신청자 177명중 159명이 응시(89.8%), 110명(69.2%)이 합격하였다. 이는 전년도 1학기 합격률 53.3%에 비해 15.9% 높은 결과다.

4학년 학우들 중 아직 졸업고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우는 6월 1일 현재 27명이다. 성경 졸업고사는 졸업 필수요건이며 4학년 학우들은 오는 11월 21일에 있을 2학기 성경 졸업고사가 마지막 기회이다.

이호우 교수 언더우드대학 총장 취임

미국 아틀란타 인근 소재
중견 기독교 대학



▲ 언더우드대학교 이호우 총장

이호우 언더우드대학 부총장이 지난 5월 15일 동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호우 총장은 본교 1987년도 졸업 미국 웨스트민스트신학대학에서 학위(MDiv, PhD)를 받고 귀국, 1998년 본교 교수로 임용되어 2012년 퇴임까지 14년간 재직하였다. 재직 기간 중 성서학과 과장, 교학처장, 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우리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언더우드대학은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인근 스와니에 있는 대학으로 경영학과, 미술학과, 기독교학과, 태권도학과가 있으며 학부와 대학원이 있다. 2011년에 개교하였고 학생수 1,400명을 가진 중견 기독교 대학이다.

이호우 총장은 지난 1일 본교를 방문, 채플에 '현대판 다윗이 되라'(삼상 17:47) 제목에서 학우들에게 두려움을 딛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며 자신의 사명과 재능을 발견하고 당당한 결기로 세상에 도전해 줄 것을 당부하여 큰 감동과 격려를 주었다.

12회 도서관 전자정보 박람회

학습자 중심의
디지털 학술 문화 확산 높여



▲ 박람회 마지막 순서인 경품추첨이 진행되고 있다.

도서관이 주최한 2026 전자정보박람회가 지난 27일 밀알관 1층 고승태홀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우리 대학이 구독하고 있는 전자저널과 학술DB 등의 활용법 및 구성원의 전자자료 역량 향상을 위해 진행해 오고 있다.

박람회에는 전자정보 공급사인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교육원(e-article), 아이원이즈(도서관 이용교육), 알라딘 전자책 등 회사에서 부스를 마련하고 학우들을 도왔다. 또한 EBSCO와 북집은 경품을 후원하는 등 7개사에서 학우들의 디지털 학술 자원 역량을 높여주었다.

마지막 순서로 경품추첨이 진행돼 학우들에게 갤럭시 워치, 소니 헤드셋, GS편의점, 맥도날드, CJ 상품권 등의 상품이 전달됐다. 이번 행사에는 230명의 학우가 참가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99.1점으로 긍정적인 답을 보내 줬다.

2026년 서울 RISE 신규 사업 '미선정'

2026년 서울RISE 신규 사업 선정평가(서면) 에서 우리 대학은 '미선정' 평가를 받았다. 우리 대학이 응모한 과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대학+'로 취업 준비생 100명을 선발, 일정 교육과정을 통해 AI 기술자 등으로 양성하여 취 창업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미선정 이유는 지역 내 타 기관과의 협업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취업준비생 모집 계획에서 세부적인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코코스’ (KBU뉴스레터) 통합 검색 서비스 구축

2007년~2026년 자료
230개 파일 제공

KBU 뉴스레터

한국성서대학교
뉴스레터입니다.

과월호 더보기 >

코코스 색인검색 >



코코스2026년05월호

▲ 홈페이지 하단 뉴스레터 과월호 더보기 하단에 설치된 검색 배너

우리 대학 학내 뉴스레터인 코코스(KOKKOS)의 기사와 자료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KBU뉴스레터 색인 검색’ 서비스가 6월 5일부터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운영된다.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코코스에 실렸던 기사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축된 통합 검색 시스템이다.

사용자는 대학 홈페이지 하단에 마련된 KBU뉴스레터 색인 검색 배너에 접속해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들이 최신순으로 제공되며 목록에서 전체 기사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검색 시스템에는 2007년 1월호부터 2026년 5월호까지 총 230개 파일이 탑재되어 있다. 코코스 창간호인 2002년 2월호부터 2006년 12월호까지의 59개 파일은 자료 보완 및 파일 정비를 거친 후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검색 서비스는 학교 구성원과 동문들 사이에서 제기된 “학교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그동안 축적된 대학 소식과 주요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내 구성원은 물론 동문들의 자료 활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은 앞으로도 대학의 역사와 발자취를 기록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확보된 학교 초창기 역사 자료와 사진 등도 정리해 순차적으로 업로드함으로써 대학의 역사 아카이브를 풍성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밀알캠프에 초대합니다”

7월 마지막 주간, 미자립교회 청소년·어린이 대상

성서선교회 소속 교회들과 미자립 교회 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섬기는 ‘여름캠프 2026년 밀알캠프’가 7월 마지막 주간에 한국성서대학 캠퍼스에서 열린다. 27일부터 29일까지는 청소년 캠프(모집인원 130명), 30일과 31일은 어린이 캠프(130명)가 진행된다.

밀알캠프는 성서대 학우들의 순수한 봉사로 숙소와 모든 비용을 무료로 제공, 독자적인 여름 수련회 개최가 어려운 미자립교회 소속 청소년 어린이들을 섬기는 봉사로 이어져 오는 행사이다. 여러 지역의 다양한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양한 놀이를 마음껏 즐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의: 교목실 김창현 목사, 02-950-5439)

1. 신청 기간 : 5월 15일(금) ~ 6월 9일(화)
(모집정원 초과시 추천으로 선발)
2. 신청 방법 : 이메일 제출(양식 첨부) / kch9768@bible.ac.kr
4. 결과 공지 : 6월 10일(수)
5. 캠프 일정 : **청소년 7.27(월) ~ 29(수) _ 어린이 7.30(목) ~ 31(금)**



총장의 편지 _ 최정권 총장

머뭇거림



총장은 출근과 함께 모니터를 켜 KBU KPI의 숫자를 바라봅니다.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총장도 성과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의 지시를 받고 있는 학교도 기관이 요구하는 성과지표를 내야 하고, 대학의 구성원들이 이것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에도 성과평가 부서가 있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아무도 총장에게 이만큼의 성장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스스로에게 채찍질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중도 탈락자의 숫자에 두 눈을 두고 다가오는 신입생 현황에 마음을 보냅니다.

숫자로 가득 찬 머리에 공백을 만들려고 친구와 찾아간 대부도의 바다를 보면서 교직원들 생각이 났습니다. 바쁜 일과에서 벗어나 하루만이라도 저 바다를 보고 섬을 건너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 머뭇거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은 머뭇거림만이 아닐 것입니다. 기계는 방향을 모르고 수줍음과 기다림, 그리고 무엇보다 느긋함을 모릅

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공지능이 사랑을 모르고, 사랑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서해 바다를 보면서 학교를 사랑하는 저를 보게 되었고,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느긋함과 여유, 그리고 먹는 즐거움과 바라보는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동물 중에서 낙타는 유일하게 반추하며 걷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사막의 먼 길을 가는 낙타처럼 그날만이라도 영적 반추의 걸음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직원 겨울 연수와 함께 이번 여름 연수에도 잠시의 멈춤과 함께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들고 바다 모래를 걸어보는 자유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심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구성원이 있다면 남은 제 임기 동안에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계속해야 할지 멈추어야 할지를...”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총장의 마음입니다.

사랑합니다.



이하은 직원(간호학과 조교)

1년
전
만남



이예준(성서학과 3)

1년
전
만남

선물을 포장하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샀으나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포장 가게를 찾을 수 없었다. 포장 없이 건네주려고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영 내키지 않는다.

내가 선물마다 포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 어릴 적 친구들의 생일날마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선물이 무엇인지 놀라게 해주고 싶어 주변의 포장 가게에서 깔끔하게 포장했다. 친구는 나에게 받은 선물 포장을 푸는 내내 미소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때의 기억이 따뜻하게 남아 이후로 누군가에게 선물 할 때는 꼭 포장 가게에 들르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선물 하나를 건네주기 시작하면 지금까지는 몰랐던 감정도 느끼게 된다. 포장 안에 담겨 있는 물건의 값어치와는 상관없이 선물은 누군가의 하루 자체를 선물로 만들어 주는 것 같다. 조금의 정성이 사람의 행복을 커다랗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노력을 굳이 그만둘 이유가 있을까.

그날도 결국 조금 멀리 떨어진 백화점의 포장 가게에 들러 선물을 예쁘게 포장했다. 그 사람에게 잘 어울릴 만한 색상의 리본까지 묶으니 선물이 훨씬 근사해 보였다. 우물쭈물 선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그 사람 쪽으로 살며시 밀어본다. 그 사람이 웃는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사람을 지켜본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결국 선물은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 상대방을 위한 투명한 마음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로 향하는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 투명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테두리를 이탈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종류의 감정의일 것이다. 누군가와 어떤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 사랑은 무한대로 축소되거나 반대로 확장되기도 한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다는 작은 마음이 상대의 미소가 되고, 그 미소가 행복이 되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한 사람 안에 머물지 않는다. 사랑의 확장이라니,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이 아닌가.

이 경기는 이미 이긴 경기입니다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던 2002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기억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2002월드컵 4강 신화는 기적과 같았고, 그 기적 가운데 응원단의 마음은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월드컵의 여름밤은 대한민국의 축제였습니다. 당시의 응원 현장은 우리에게 축제와도 같은,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대를 품고 열정적으로 응원하니 4강이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전 국민이 환호했고, 2002년의 여름밤은 매일이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월드컵이 대한민국을 축제로 이끌었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는 온 우주에 진정한 승리와 생명의 축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열정을 품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 다시 복중미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여러 강대국의 라인업을 보면 축구인의 가슴이 뜨거워짐과 동시에 그들이 우리나라의 상대라는 사실에 마음이 차갑게 식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그때의 기억을 붙잡고 다시 기대를 걸어봅니다. 당시의 뜨거움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열기가 지금까지도 “다시 한번!”이라는 마음을 품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구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고, 어이없는 실점을 하기도 합니다. 완벽했던 슈팅은 야속하게 골대를 맞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가시간에 터지는 짜릿한 역전골은 우리를 다시 경기장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 가운데 거하던 우리에게 가장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것과 같습니다. 그 승리가 나의 승리로 경험될 때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교회담임)

임진각 너머, 그리고 우리 대학

지난주, 모세 사랑방 어르신들과 함께 임진각 DMZ에 다녀왔습니다. 철조망 너머 북녘땅을 바라보며 통일의 날을 조용히 염원했습니다.

오가는 길에 한 교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대 소년 시절, 피난길에 가족과 헤어져 홀로 수송선에 올랐던 이야기. 거제와 대구, 부산을 전전하며 버텨온 시간들. 담담하게 꺼내놓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혀왔습니다.

심방을 통해서도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현장에서부터 믿음의 대를 이어온 신행민 가정입니다. 어머니 권사님께서서는 연로하셔서 거동이 어려우시지만, 매 주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일제로부터 광복과 전쟁에 나간 남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뎌온 삶. 그 이야기 앞에서 저는 오랜 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 민족이 일어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는 1952년 강태국 목사님이 한 가지 확신을 붙들고 세운 학교입니다. “이 민족이 다시 사는 길은 오직 복음뿐이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품은 그 꿈을 하나님은 74년 동안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꿈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피난 길을 홀로 걸어온 소년의 삶 속에, 누워서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의 손안에서 이미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연약한 자리에서부터.

우리 교회는 그 꿈의 작은 동역자입니다. 어르신들이 눈물로 뿌린 씨앗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온전히 전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43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쁨도 잠시, 뒤돌아서면 새로운 기다림이 다음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다.

기다림은 모든 순간을 기대하게 한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에도 가슴이 쿵쿵거린다. 너였다가, 너였다가, 마침내 너일 것이었다가, 네가 오지 않아도 또 다시 너를 꿈꾸게 하는 용기를 준다. 그러나 네가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해 천천히 오고 있음을 알았으니 더 이상 가슴 아리지 않을 것이다.

먼 길을 돌아서라도 끝내 찾아올 너를 믿기에, 오늘도 설레는 숨을 고르며 걸음을 옮긴다.

유아들이 꿈지락 인형극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다문화어린이

꿈지락 인형극 공연

노원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꿈지락 인형극단'은 지난 20일 우리 어린이집에서 특별 공연을 하였다.

등장인물에 따라 색상이 바뀌는 인형극이며 치매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로 구성돼 재미와 경험까지 얻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공연이 끝난 후 연기를 준비하고 보여준 어른신들께 박수와 감사를 전하며 공연의 마음을 보였다. 이번 활동은 아이들이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며 존경의 마음을 배운 시간이 되었다.

[감사반 주예진 교사]

어버이날을 맞아 어른신에게 전해 줄 특식



다문화어린이

어버이날 행사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무료 급식과 식사 배달, 밑반찬 지원을 받는 어른신을 대상으로 기념 행사를 가졌다.

어르신들이 어버이날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음식은 물론 카네이션을 전달하였다. 특별히 인생넥트와 추러스 부스로 어르신들에게 이색 경험을 선사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 밖에도 노원구와 월계동 새마을부녀회가 배식 봉사, 관장을 비롯한 월계의 직원들도 안부 인사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복지서비스팀 임하성 사회복지사]

유아들이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 중이다.



다문화어린이

어린이날 행사

꿈빛어린이집은 4일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각 반별로 테마 활동에 적합하도록 내부의 디자인과 놀이시설물을 배치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자동차 극장에서는 자동차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는 즐거움도 누렸다. 신체 놀이방과 만들기 방에서는 풍선 터널 통과하기, 골인 게임, 낚시 놀이가 건강과 재미를 더했고 에어바운스, 바람개비 꾸미기에서는 스릴과 자유도 경험하였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가 단 하루였지만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며 주인공으로서 충만함을 만끽해 준 날이 되었다.

[민들레반 박소연 교사]

벽초지수목원에서 '청년과 함께 하는 어른신나들이' 를 마친 참가자들



성서대학교교회

청년세대와 어른신세대의 교감

성서대학교교회는 16일 70대 이상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함께 벽초지수목원을 방문했다. 이번 동행은 세대 간 단절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세대와 어른신이 교감을 통해 주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높여보기 위해 마련하였다. 어르신과 청년이 벽초지수목원의 호젓한 길을 산책하면서 화제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해 갔다. 어르신의 지나온 경험이 청년에게는 소중한 지혜였고 친구 세대가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

성서대학교교회는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팀이 되는 교회 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홍성진 부목사]

아동들이 '미덕 천사 보물 찾기' 교육을 수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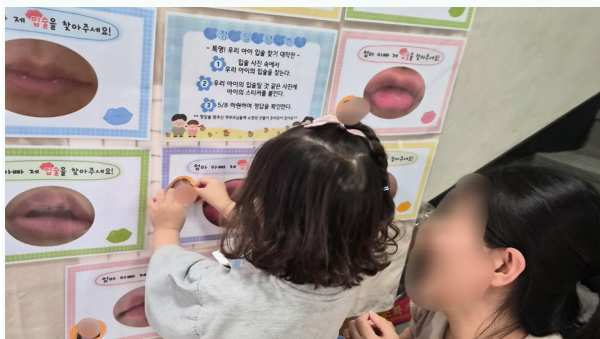
월계지역아동센터

52가지 '미덕'

본 센터에서는 12~26일까지 아동들이 자신의 가치 발견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할 '미덕 천사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4회기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전체 52가지의 미덕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스스로에게 긍정과 희망을 불어넣는 과정이다. 아동들은 자신을 '미덕 천사'라고 부르는 걸 수줍어하였다. 시간이 흐르자 친구가 공부를 어려워해서 '도움'을, 독서와 연산을 열심히 배우며 '근면'을 보였다. 회기가 거듭될수록 자신감을 가졌고 친구의 미덕까지 찾아내 칭찬해 주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아랑 센터장]

사진으로 자기 자녀의 입술 사진을 찾고 있다.



상계백병원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힐링의 날

상계백병원어린이집은 8일 '힐링의 날'을 진행하였다. 부모님이 육아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도록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입술 찾기에서는 부모님들은 사진 속 주인공과 자녀의 입술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기쁨을 안겼다. 영아들은 유희실 '컬러데이'에서 색깔과 모양의 놀잇감을 탐색하였고 뽕튀기도 맛보며 즐겼고 이후 친구들과 저녁 식사까지 잘 마무리하였다.

하원 시간에는 귀여운 '효도 충전' 코스튬을 하고 부모님을 맞이해 큰 웃음을 선사했다. 아이들의 감쪽한 모습이 큰 행복을 안겨준 하루가 됐다.

[맑은반 이진아 교사]

노원구 어린이날 축제에 참가해 운영한 '놀이줘 홈즈' 부스의 모습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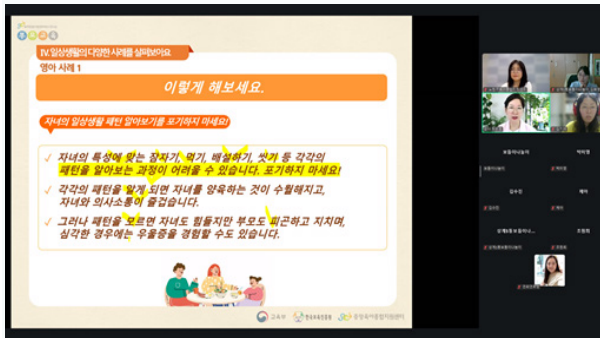
놀이줘 홈즈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일 등나무문화공원에서 열린 노원구 어린이날 축제에서 '놀이줘 홈즈'를 운영했다.

이 행사는 구하기 쉬운 생활용품을 활용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놀이를 소개한 체험형 행사다. 놀이를 완성해 가는 모습은 가정 내 놀이문화 확산의 취지와도 잘 맞았다. 일상 안에서 놀이가 잘 이어지도록 방법까지 공유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행복한 양육 환경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김보람 보육전문요원]

Zoom을 이용해 자녀와 대화법이 진행 중이다.



상계5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자녀와 대화법

상계5동어린이집은 27일 학부모 교육으로 '자녀와 대화법'을 Zoom으로 진행하였다. '자녀와의 긍정적인 대화'를 주제로 연령에 맞는 대화법과 아이 이해하기, 유연한 소통하기 등을 Zoom 방식으로 전했다.

"빨리 해!"와 같은 지시형보다 "우리 이렇게 해볼까?"와 같은 권유형이 아이의 마음속까지 존중하는 대화법에 공감하였고 상호작용에도 관심이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와 긍정적인 말투의 중요성까지 알게 됐으며 만족감을 보였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 시간이 되었다. [온누리반 강혜진 교사]

유아들이 서울생활사박물관에서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늘사랑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어린이날 · 어버이날

늘사랑어린이집에서는 4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 연령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험 놀이를 진행하였다. 어린이집 내에 풍선 놀이방, 선글라스 및 바람개비 만들기 등을 준비하였는데 풍선 놀이방이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친구와 과자를 먹고 시간 보내기를 통해 또래와 즐기며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다.

8일 부모님께 직접 만든 카네이션과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경로당 어르신께도 카네이션을 전달, 어른 공경의 마음을 실천한 날이 되었다. [신나반 김현애 교사]

밀알축제에 참여해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월계우리동마을나눔소
민간어린이집

폭력 예방 캠페인

월계우리동마을나눔소는 13일, 한국성서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학내 구성원들에게 가정폭력과 성폭력 및 고계폭력, 스토킹 등에 대한 정보와 예방 인식을 환기해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폭력의 유형별 특성과 대처 방안, 피해자 지원 등을 정리한 자료가 제공되었다. 퀴즈 부스의 운영과 실질적인 예방 정보를 비롯해 기념품 배포까지 더해져 관심이 지속되었다.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폭력 예방을 위한 행사를 지속해 갈 예정이다. [진우현 상담사]

「성서대학돕기운동」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5년 4월 20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 | | | |
|-----------------|-----------|----------------|-----------|
| 홍콩중앙교회(정승대 목사) | 370만원(운영) | 김재국 장로 | 120만원(장학) |
| 수원안다목교회(김동관 목사) | 330만원(운영) | 가성교회(윤두태 목사) | 110만원(운영) |
| 서부장로교회(박현승 목사) | 260만원(운영) | 중앙성서교회(이우근 목사) | 100만원(운영) |
| 더바이블처치(김윤기 목사) | 200만원(운영) | 김태일 | 100만원(운영) |
| 우리교회(김남웅 목사) | 200만원(운영) | 초대교회(구재서 목사) | 100만원(운영) |
| 삼일교회(송태근 목사) | 170만원(운영) | 성서적세계관 외래교수 | 100만원(운영) |
| 강우정.강진 | 160만원(운영) | 최정권 총장 | 110만원(운영) |
| (사)한국성서선교회 | 150만원(운영) | 박훈희 | 110만원(운영) |

약정자 명단

| | | | | |
|----------------|---|---|--------------------------|---|
| 동문 및 가족 | | | | |
| 1구좌 | 강신용 박지윤 김민서 김연정 김정원 김정희 노하나 도 만 박 원 박정선 박현숙 배재원 서유미 손윤숙 윤지준 이문성 이분옥 이 진 장현숙 전명수 전미영 정소영 탁윤석 한지희 홍해경 | 3구좌 권서영 이길순 태지선 5구좌 이부호 이유나 6구좌 정동주 10구좌 성낙표 | 10구좌 김경숙 장성희 15구좌 임지영 | 1구좌 김예람 김유벽 엄정호 오지은 오현숙 이영은 2구좌 김진홍 신지영 정하영 5구좌 주은자 10구좌 김은혜 |
| 1.5구좌 | 이예람 | 재학생 및 가족 | 성서대학교회 | 단체 및 기관 |
| 2구좌 | 고난홍 구연민 김동욱 김은하 민성희 유의숙 윤덕진 이광석 이충희 | 1구좌 김미진 나예린 양은성 2구좌 이지영 5구좌 박훈희 | 1구좌 이경신 5구좌 푸른동산교회 | 5구좌 다드림교회 10구좌 의정부성암교회 |
| | | 교직원 및 가족 | 장자교회 | 지역사회 |
| | | 0구좌 유성준 2구좌 한상만 5구좌 안정선 | 4구좌 권정숙 | 5구좌 이지연 |
| | | | 중앙성서교회 | |
| | | | 3구좌 권순호 5구좌 김옥자 이경식 | |
| | | | 일 반 | |

기부자 명단

| | | | | | |
|----------------|---|---|-----------------|---|---|
| 동문 및 가족 | | | | | |
| 1만원 | 강나경 강순성 강애슬 강우경 강은혜 강정희 강주옥 고대운 고재민 공승천 광미화 광원균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유철 권정인 권희조 금동욱 김필규 기상혁 김기영 김다솔 김도훈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열 김민서 김민정 김민음 김병철 김선근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수정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연정 김예진 김유미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환 김일준 김재현 김경희 김 진 김진숙 김진영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철철 김혜영 김희석 나선영 남범수 남성휘 노정식 노정현 노하나 도 만 류요한 류한나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박경진 박문홍 박수진 박순임 박영모 박윤복 박재숙 박재신 박중주 박지영 박장민 박태인 박향식 박현숙 박형택 박해인 방지연 배은휘 배재원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서영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규원 서유미 서진희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진규 송기철 송민규 송향숙 송희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은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양주향 양지환 양혜영 엄미자 엄보영 연현숙 오세천 오찬미 오채영 오현호 용아름 우종영 우현아 원은희 유미정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현중 | 이경일 이대환 이도혁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선정 이세은 이송아 이수경 이수진 이수진 이신재 이영식 이용원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희 이정훈 이 진 이진경 이철승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란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장동명 장윤국 장은희 장익봉 장익심 장현숙 장호성 장희남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하나 정다연 정선도 정소영 정슬기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주영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만음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윤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조현석 주민자 주성현 주진우 지영환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애인 최은빛 최인호 최재봉 최중은 최진희 최현정 탁국원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강 한지희 한혜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 홍성식 홍해경 황예린 강해든지/설에스더 /황보혜영 /손잡는교회/열매맺는교회 | 3만원 | 55만원 | 이병철 신치선 성서적세계관/초대교회 김남웅 김동관 |
| | | 3만원 | 재학생 및 가족 | | |
| | | 4만원 | 1만원 | 강성철 김미진 김윤영 김경녀 김해미 나예린 박기봉 박한울 송지민 심희정 양은성 이다원 이동기 이미숙 이성란 이수진 이연신 이정윤 이하람 이혜정 임동화 장연정 장영철 전개화 조윤경 최예은 한선희 한승천 한정화 홍상기 홍창훈 | |
| | | 5만원 | 2만원 | 강은덕 강현중 권영진 김선옥 김성아 김승희 김경숙 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형태 문순용 문혜진 박유순 박윤경 송동식 송세희 신동숙 안차남 여진옥 연성희 오명미 유효진 이경민 이동훈 이만호 이미범 이선미 이소희 이승진 이승찬 이우규 이은영 이재은 이해란 임경배 임영용 장영순 정인숙 정현규 조복임 조율미 최경애 최문정 최유성 최유성 최장호 | |
| | | 6만원 | 3만원 | 박보병 배정숙 전희문 최정규 | |
| | | 10만원 | 4만원 | 김성안 전옥순 | |
| | | 11만원 | 5만원 | 권오길 김남숙 김영자 김희선 박선희 박인규 소미연 송희경 안중현 윤수호 이재현 이혜영 조하은 | |
| | | 12만원 | 6만원 | 경주화 | |
| | | 20만원 | 10만원 | 장은정 | |
| | | 50만원 | 31만원 | 황미숙 | |
| | | | 50만원 | 정태리 | |
| | | | 100만원 | 박훈희 | |
| | | | 교직원 및 가족 | | |
| | | | 1만원 | 강신애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 |

기부자 명단

| | | | |
|--|--|---|---|
| 김선준 김세진 김애란 김유진 김지환 김홍하 김형중 김호현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명우 박묘서 박인혁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서하나 신 군 양승원 유성준 유연자 이가영 임수아 임재혁 장경순 전귀선 정옥환 조성찬 진달래 최미영 | 1만원 서효정 삼일성서교회 1만원 오성균 정혜란 한금순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윤인호 성서대학교회 9천원 김은미 박지숙 오경모 이경한 정중승 최요한 탁경미 |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10만원 주향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고세정 김세현 김순애 김영미 김용술 김의자 김정희 김춘배 박혜원 안승수 이상규 이수연 이승화 이태학 이해영 최영란 권영애, 신한성/이준구, 안춘자 3만원 권순호 김덕규 5만원 김옥자 이경식 이우근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원로·은퇴장로회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5만원 이해선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중앙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10만원 김옥례 김은혜 안순복 박순정 40만원 김태일 100만원 김재국 120만원 서부장로교회 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꿈꾸는교회 /늘푸른교회/맘키즈푸드 /목양교회/무진인터내셔널 /주님순교회/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주)에이스외식산업 /도새기방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3만원 동신자원/우리교회 /의정부좋은나루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4만원 플랜티스즈 5만원 녹수교회/다드림교회 /미사목민교회/사랑샘교회 /상일교회/천성교회 /평안교회(신병수)/행천교회 10만원 (주)바디나라 /(주)이레E&C이레디자인 /경성교회 /구리중앙교회 /도봉성산교회/동산교회 /두암산업(주) /상록교회/성기는교회 /성북중앙교회 /의정부제일교회 /전주서부중앙교회 /청평교회 20만원 전하석/(주)소원기건 /의정부성암교회 /인천제2교회 30만원 한민제일교회 50만원 동서환경(주) 110만원 가성교회 150만원 (사)한국성서선교회 170만원 삼일교회(용산) 200만원 더바이블처치 371만원 흥공중앙교회 지역사회 1만원 김은지 김지은 김하예 서애진 송유정 오동준 유주연 유희주 이유리 이은경 임재택 2만원 윤종찬 허성보 3만원 구비란 문유나 박미라 오윤아 5만원 이지연 7만원 김선화 35만원 오동준 |
|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우 권민주 김남준 김세원 김장호 문건희 민경은 박예진 반종원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이은혜 이지민 장길정 장지순 정순애 정지용 조철남 최나영 한정숙 |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이대한 이지철 이지수 이진호 1만8천원 강유진 고경숙 고미숙 권은경 김도매고 김미정B 김선교 김성진 김성철 김애숙 김영숙B 김유미 김일선B 김지윤 김현미 김희자 김희현 민영빈 박영숙 박영신 박인숙 박주현 박천수 배성아 배성준 서영우 서 훈 손원자 안봉숙 용정자 윤재필 이경미 이길우 이무현 이영희 이정숙 이정자 이종욱 이행자 임용택 장근문 장은정 정나영 정태성 조병하 조하나 최용석 최인숙 한성실 한순애 황서린 황시은 김영숙 이해화 | 15만원 이해선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중앙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2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 3만원 고윤정 권오섭 김장현 방진희 양희정 여진희 유다은 유수연 이철희 | 2만7천원 김영숙 임환석 3만6천원 구영신 김동석 김배열 김상은 김인자 김일선A 박상희 박 선 박효민 반해빈 반해성 석경순 손경술 이관영 장기영 영락은 4만5천원 고상진 박은경 유희창 5만4천원 김경희 김춘환 김현석 송재철 심하심 오치숙 윤도진 이숙영 최영태 | 15만원 이해선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중앙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2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 4만원 윤혜진 5만원 구광연 김성호 김원빈 김현동 박상민 신재윤 양다아 유미나 이길형 이상일 장성희 장정순 전영호 | 7만2천원 김경원 김희정 김희영 김희미 문무열 박태웅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이민규 이상아 이소정 이슬기 장인숙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김정원(신)/김정원(영) | 15만원 이해선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중앙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2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 6만원 권순범 신지수 7만원 김병수 임환석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권용준 김소희 김경숙 김현광 김현옥 김형미 문무열 박태웅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이민규 이상아 이소정 이슬기 장인숙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김정원(신)/김정원(영) | 7만2천원 김경원 김희정 김희영 김희미 문무열 박태웅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이민규 이상아 이소정 이슬기 장인숙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김정원(신)/김정원(영) | 15만원 이해선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중앙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2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 11만원 최지은 13만원 김용기 김중완 15만원 권경만 김덕현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한진호 | 9만원 김순옥 김영현 김원태 김유미A 노봉환 문명래 박세건 박은유 반세호 서수희 이병윤 임성일 전명진 최대만 최순남 한진호 김용희 | 15만원 이해선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중앙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2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 20만원 김주아 김창원 박 선 정취진 25만원 이강동 28만원 강규성 30만원 임지영 53만원 박태수 85만원 최선희 100만원 최경권 158만원 강우정, 강 진 | 10만원 김순옥 김영현 김원태 김유미A 노봉환 문명래 박세건 박은유 반세호 서수희 이병윤 임성일 전명진 최대만 최순남 한진호 김용희 21만원 김효정 길용희 36만원 이경신 41만원 이미정 | 15만원 이해선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중앙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2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 부설기관 3만원 권효진 박천수 변송이 안미희 유정현 5만원 이인경/월계지역아동센터 6만원 장나혜 10만원 김선영 장수진 조지선 15만원 권정아 김화영 지주나 20만원 김신덕 5만원 이인경/월계지역아동센터 10만원 김선영 박남나 장수진 조지선 차도영 15만원 권정아 지주나 20만원 김신덕 차 건 | 10만원 김순옥 김영현 김원태 김유미A 노봉환 문명래 박세건 박은유 반세호 서수희 이병윤 임성일 전명진 최대만 최순남 한진호 김용희 21만원 김효정 길용희 36만원 이경신 41만원 이미정 | 15만원 이해선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중앙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2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밀알교회 | 성서선교회 2만원 금촌성서교회 5만원 푸른동산교회 10만원 다빛교회/삼일성서교회 100만원 중앙성서교회 세빛교회 5만원 세빛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정유광 홍성호 황병숙 2만원 김일섭 어린이양교회 1만원 김경희 2만원 한지화 3만원 임윤창 5만원 어린이양교회 7만원 이정선 일동성서교회 1만원 심미영 유현석 2만원 김의남 박문수 3만원 왕순희 5만원 표길홍/일동성서교회 장자교회 | 15만원 이해선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중앙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2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 한국성서대학교 5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26,938,910원) 흥공중앙교회 3,713,190원 김동관(동문) 3,300,000원 서부장로교회 2,568,720원 더바이블처치 2,000,000원 김남웅(동문) 2,000,000원 삼일교회 1,700,000원 한국성서선교회 1,500,000원 성서적세계관(교직원) 1,000,000원 박훈희(학부모) 1,000,000원 가성교회 1,000,000원 중앙성서교회 1,000,000원 최경권(교직원) 1,000,000원 초대교회 1,000,000원 김태일 1,000,000원 신치선(동문) 500,000원 이병철(동문) 500,000원 이성화(동문) 500,000원 최선희(교직원) 500,000원 동서환경(동문) 500,000원 박태수(교직원) 300,000원 김종환(동문) 200,000원 우리회(교직원) 157,000원 | 성서선교회 2만원 금촌성서교회 5만원 푸른동산교회 10만원 다빛교회/삼일성서교회 100만원 중앙성서교회 세빛교회 5만원 세빛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정유광 홍성호 황병숙 2만원 김일섭 어린이양교회 1만원 김경희 2만원 한지화 3만원 임윤창 5만원 어린이양교회 7만원 이정선 일동성서교회 1만원 심미영 유현석 2만원 김의남 박문수 3만원 왕순희 5만원 표길홍/일동성서교회 장자교회 | 15만원 이해선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중앙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2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 약정 후원자 (합계 50구좌/연간 납입예정액 6,000,000원) 10구좌 의정부성암교회, 이인영(교직원) 5구좌 일동성서교회 3구좌 고윤정(교직원), 이선경(동문) 2구좌 김성안(재학생) 윤덕진, 푸른동산교회(동문) 1구좌 김정녀(동문), 김석균, 김현, 장병길, 정소영, 노경식, 유종엽, 이경신, 이문성, 전형식, 최영훈, 최예은, 한지희 | 성서선교회 2만원 금촌성서교회 5만원 푸른동산교회 10만원 다빛교회/삼일성서교회 100만원 중앙성서교회 세빛교회 5만원 세빛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정유광 홍성호 황병숙 2만원 김일섭 어린이양교회 1만원 김경희 2만원 한지화 3만원 임윤창 5만원 어린이양교회 7만원 이정선 일동성서교회 1만원 심미영 유현석 2만원 김의남 박문수 3만원 왕순희 5만원 표길홍/일동성서교회 장자교회 | 15만원 이해선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중앙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2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 일시납 누계(2026.3.1~2026.5.24) 163,622,580원 약정자 누계(2026.3.1~2026.5.24) 310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37,200,000원 | 성서선교회 2만원 금촌성서교회 5만원 푸른동산교회 10만원 다빛교회/삼일성서교회 100만원 중앙성서교회 세빛교회 5만원 세빛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정유광 홍성호 황병숙 2만원 김일섭 어린이양교회 1만원 김경희 2만원 한지화 3만원 임윤창 5만원 어린이양교회 7만원 이정선 일동성서교회 1만원 심미영 유현석 2만원 김의남 박문수 3만원 왕순희 5만원 표길홍/일동성서교회 장자교회 | 15만원 이해선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중앙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2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소계(20260421~20260520) 60,187,510
누계(20260301~20260520) 247,189,173

| | | | |
|--|--|---|---------------------------------------|
| 한국성서대학교 5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26,938,910원) 흥공중앙교회 3,713,190원 김동관(동문) 3,300,000원 서부장로교회 2,568,720원 더바이블처치 2,000,000원 김남웅(동문) 2,000,000원 삼일교회 1,700,000원 한국성서선교회 1,500,000원 성서적세계관(교직원) 1,000,000원 박훈희(학부모) 1,000,000원 가성교회 1,000,000원 중앙성서교회 1,000,000원 최경권(교직원) 1,000,000원 초대교회 1,000,000원 김태일 1,000,000원 신치선(동문) 500,000원 이병철(동문) 500,000원 이성화(동문) 500,000원 최선희(교직원) 500,000원 동서환경(동문) 500,000원 박태수(교직원) 300,000원 김종환(동문) 200,000원 우리회(교직원) 157,000원 | 성서선교회 2만원 금촌성서교회 5만원 푸른동산교회 10만원 다빛교회/삼일성서교회 100만원 중앙성서교회 세빛교회 5만원 세빛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정유광 홍성호 황병숙 2만원 김일섭 어린이양교회 1만원 김경희 2만원 한지화 3만원 임윤창 5만원 어린이양교회 7만원 이정선 일동성서교회 1만원 심미영 유현석 2만원 김의남 박문수 3만원 왕순희 5만원 표길홍/일동성서교회 장자교회 | 15만원 이해선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중앙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2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 약정 후원자 (합계 50구좌/연간 납입예정액 6,000,000원) 10구좌 의정부성암교회, 이인영(교직원) 5구좌 일동성서교회 3구좌 고윤정(교직원), 이선경(동문) 2구좌 김성안(재학생) 윤덕진, 푸른동산교회(동문) 1구좌 김정녀(동문), 김석균, 김현, 장병길, 정소영, 노경식, 유종엽, 이경신, 이문성, 전형식, 최영훈, 최예은, 한지희 | 성서선교회 2만원 금촌성서교회 5만원 푸른동산교회 10만원 다빛교회/삼일성서교회 100만원 중앙성서교회 세빛교회 5만원 세빛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정유광 홍성호 황병숙 2만원 김일섭 어린이양교회 1만원 김경희 2만원 한지화 3만원 임윤창 5만원 어린이양교회 7만원 이정선 일동성서교회 1만원 심미영 유현석 2만원 김의남 박문수 3만원 왕순희 5만원 표길홍/일동성서교회 장자교회 | 15만원 이해선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중앙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2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 일시납 누계(2026.3.1~2026.5.24) 163,622,580원 약정자 누계(2026.3.1~2026.5.24) 310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37,200,000원 | 성서선교회 2만원 금촌성서교회 5만원 푸른동산교회 10만원 다빛교회/삼일성서교회 100만원 중앙성서교회 세빛교회 5만원 세빛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정유광 홍성호 황병숙 2만원 김일섭 어린이양교회 1만원 김경희 2만원 한지화 3만원 임윤창 5만원 어린이양교회 7만원 이정선 일동성서교회 1만원 심미영 유현석 2만원 김의남 박문수 3만원 왕순희 5만원 표길홍/일동성서교회 장자교회 | 15만원 이해선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중앙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2만원 김소야 문경녀 진은숙 2만원 한옥경 3만원 진효숙 |

배움에서 사명까지 : 사역의 지평을 넓히는 시간

KBU 6월 성서아카데미

CHAPTER 1 [교육전도사 및 성도 대상]
창세기 강해

교육일시 6/22(월)~7/20(월) 19:00~21:00
(매주 월, 총 5회) 실시간 화상강의 zoom

주요내용 창세기로 알아보는 고대 근동의 맥락부터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까지

강사소개 강규성 교수
본교 성서학과 & 본교 부총장
전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창조주 하나님의 방문 : 창세기에 대한 성경신학적 묵상」 저자

신청기간 6/1(월)~19(금)

수강료 4만원 ※26년 2월 기수강자 대상 1만원 할인

CHAPTER 2 [영아부 사역자 대상]
영아 이해에 따른 설교 전략

교육일시 6/23(화) 19:00~21:30 (총 1회)
 실시간 화상강의 zoom

주요내용 영아의 마음과 행동 이해하기
영아발달을 반영한 영아부 설교 및 사역포인트

강사소개 강정원 교수 본교 영유아보육학과
김선화 교수 광운대 교육대학원 교수
영아부 사역 담당

신청기간 6/1(월)~6/22(월)

수강료 3만원

CHAPTER 3 [교육전도사 대상]
예비 사역자 초심 다지기

교육일시 6/25(목), 7/2(목) 19:00~21:30 (총 2회)
 실시간 화상강의 zoom

주요내용 사역자 정체성에 대한 이해
사역의 실제 : 자기 관리, 리더십과 소통,
예배·설교 세우기, 행사 계획, 심방 등

강사소개 권용준 교수
본교 성서학과
「생명과 말씀」 편집위원
전 수영로교회/안산동산교회 부교역자

신청기간 6/1(월)~6/24(월)

수강료 3만원 ※26년 2월 기수강자 대상 50% 할인

CHAPTER 4 [교육전도사 및 평신도사역자 대상]
미취학부 이해에 따른 설교 전략

교육일시 6/30(화) 19:00~21:30 (총 1회)
 실시간 화상강의 zoom

주요내용 유아의 마음과 행동 이해하기
유아부/유치부 운영 실제 및 설교 전략

강사소개 강정원 교수 본교 영유아보육학과
이지민 전도사 성서대학교교회 전도사
보육학 석사&목회학 석사

신청기간 6/1(월)~6/29(월)

수강료 3만원

신청방법 : QR코드 스캔하여 구글폼 신청

장학할인 : 한국성서선교회 소속 교단 및 본교 동문 → 강좌당 1만원 할인
※중복 혜택 적용은 제외되며, 가장 혜택이 큰 금액으로 납부 안내 예정

납부방법 : 국민은행 [835001-04-132977] 한국성서대학교

참고사항 : 수료 후 교육수료증 및 교육비 납입확인서 발급 가능

▼강좌신청 QR▼

